

# “5·18정신 헌법 수록·달빛고속철 특별법 협력”

## 광주시-민주 시장 정책협의회

### 5·18 계승, 원포인트 개헌 추진 아동·청소년 대중교통비 모색 대구와 고속철 예타 면제 논의

광주시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추진 등을 더불어민 민주당 광주시당에 요청했다.

광주시와 민주당 광주시당은 1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 이병훈 시장 위원장, 송갑석·이형석·이용빈·민형배 국회의원, 5개 자치구청장과 광역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아동(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달빛고속철도 예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18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관련 △광주시 22개 국비 지원 사업 건의 등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5·18의 헌법적 가치 정립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5·18 정신의 항구적 계승을 위해서는 헌법 전문 수록이 꼭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내년 총선 개헌을 목표로 하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개헌 발의선)의 공동발의를 끌어내기 위해 당정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동(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

원추진’은 탄소중립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아동·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논의·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달빛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문제는 광주와 대구의 의견을 모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공동선언을 하고, 법안을 공동발의 하는 등 선행 조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극복하고 동서 구조로 확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발의에 나설 경우 동서 화합과 지역 갈등 극복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22개 국비지원사업 건의’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신규 사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민주당과 광주시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공공요금 인상, 가계 소득 감소, 대 중국 무역수지 역전 등 대내적, 대외적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책 없이 국민과 싸움만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행동해야 하고 시민의 마음을 얻어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경제 위기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지금 주요 정책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가 열린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당정이 함께 노력해 국비 확보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와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 전남도, 서남권 6개 시·군 2784억대 투자유치

### 무안·완도에 리조트·콘도 건립 천일염·세라믹 산업 등 투자도

전남도가 서남권 6개 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서남권 8개 기업과 ‘첨단전략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278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8개 기업대표, 박홍률 목포시장, 김성 장흥군수, 김성훈 무안부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등이 함께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유)한강개발은 서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안 삼향읍 왕산리 일원에 2026년까지 752억원을 투자해 리조트를 건설한다.

또 경보건설(주)은 완도군 신지면 일원에 1027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휴양콘도 미니업을 건립한다.

수산업 재도약을 위한 투자유치도 이뤄졌다. 바다씨푸드는 장흥 바이오산단에 2024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해 자숙꼬막 살 생산시설을 준공한다.

벽수소금(주)도 2024년까지 137억원을 투입해 영광군 덕호리 일원에 벚짚가마니

3년 숙성 천일염 제조 창고를 구축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 투자도 이뤄진다. ㈜세원하드웨어는 2024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해 목포 세라믹산단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에 사용하는 세라믹 코팅분말을 제조한다.

또 미래전략산업인 이차전지 관련 기업인 동진기업(주)과 ㈜제이케이베스트, ㈜정테크놀로지는 합평 빛그린산단에 입주한다.

이들 기업은 각각 560억원, 69억원을 투자해 원통형 이차전지 설비 제조 시설과 이차전지 조립설비용 부품 가공 제조 라인을 구축한다.

전남도는 서남권 신활력 프로젝트 일환으로 ‘광주·영암·목포 아우토티(속도무제한 고속도로)’와 ‘목포·무안 전남형 트램 도입’ 등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통해 투자할 만한 전남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차전지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핵심인 관광산업, 전남의 명품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남권에 투자가 결정됐다”며 “기업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서남권 8개기업과 278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 한 후 양오열 동진기업(주) 대표 등 8개 기업대표와 박홍률 목포시장, 김성 장흥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김성훈 무안부군수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도, 동부본부 조직개편안 확정... 추경 7652억 증액

### 동부본부 4개 실국체제 재편 추경 본예산 대비 6.5% 증가

전남도가 오는 7월 동부통합청사 개청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민생안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확정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관광문화체육국을 기능별로 세분화해 관광체육국과 문화융성국으로 분리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 추진으로 관광 업무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문화융성국을 설치해 영상콘텐츠, 웹툰, 애니메이션, e스포츠 등 급속히 커지고 있는 문화 신산업에 대응한다.

대학지원체계를 개편한 정부방침에 따라 관련 기능도 강화했다. 기존 대학지원팀을 대학혁신추진단(TF)으로 확대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글로벌30에 선제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균형성과담당관을 신설해 국가균형발전과 도내 시군의 고른 발전을 함께 이끈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급 본부장을 새롭게 승인받았다. 동부지역본부장은 소관 실국을 총괄·조정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신속한 결정 권한을 갖는 등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도 본예산 11조8099억원 대비 7652억원(6.5%)이 증가한 12조5751억원 규모를 확보했다. 일반회계는 6110억원

(6.6%) 증가한 9조8993억원, 특별회계는 528억원(5.0%) 증가한 1조1026억원, 기금은 1014억원(6.9%) 증가한 1조5732억원이다.

이는 본예산 예산 규모 증가율(2.9%)을 포함해 전년 대비 9.4% 늘어난 예산으로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국제·지방세 세수 결손을 미리 전망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세출 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을 통해 809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했다”며 “2023년 본예산에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등 세수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최황지 기자**

## 광주시, 안전실천 안전광주 공모전 시상

### 안전의식·문화 등 확산 위해

광주시가 지난 16일 시청 총무실에서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한 안전실천 안전광주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광주시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했다.

대상에는 광주예고 정지은 학생의 ‘당신의 눈과 귀는 무엇입니까’, 송우초 손예림 학생의 ‘기초부터 안전하게 생명 살릴 수 있다’ 등 2점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잠깐! 우회전 일시정지’ 등 6점, 우수상 9점, 장려상 10점 등 모두 27점을 선정

했다.

올해 공모전은 지난해에 비해 참여작이 46점에서 422점으로 크게 증가했고, 작품의 완성도 또한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수상작은 도로횡단 때 핸드폰 사용의 위험,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시는 수상작들을 시청 1층에서 22일까지 전시하며, 하반기 열리는 시민체험한마당 행사 등에도 전시할 예정이다.

신동하 안전정책관은 “올해 공모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참신하고 창의성 높은 작품을 출품했다”며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실천 안전광주 공모전을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 전남해양수산과학관 ‘새 단장’... 휴가철 개장

### 순천박람회 연계 할인도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여름 휴가철 관람객 맞이하기 위해 여수 돌산읍에 소재한 ‘해양수산과학관’ 새 단장을 마쳤다.

18일 과학원에 따르면 과학관 새 단장은 지난 4월 본관동 외벽 보수를 시작으로 측면 트릭아트 디자인 도색 공사를 통해

이색 사진촬영 공간을 마련했다.

전체적으로 생동감 있는 바다 풍경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꾸몄다.

전시관과 체험수족관은 조명시설 등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새로운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다양한 바다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멸종위기종 명태를 비롯한 바리과 어류, 돌류 등 남해안 토산 어종과 하와이·홍해 바다 열대어 등 100여종 5000여마리의 생물을 전시하고 있다.

또 닥터 피쉬, 물고기 먹이주기 등 체험거리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새 단장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개최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게 전시관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최황지 기자**